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2월 07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소식지에 경전철공사 관련 소식 실어야



이영심 의원

제1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영심 의원이 “현재까지 경전철공사 추진경위와 개통시기 요금관계, 환승역, 역사 출입구 관계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영심 의원은 “경전철공사 완공이 내년 11월20일경이라고 알고 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소속된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이 있다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히고 주민들은 경전철공사가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개통이 되느냐, 또 20년 쯤이나 되는 것이냐 등등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 많이 지연된 탓에 개통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이기도 할 것이라며 교

통행정과에서는 공사가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청장 혹은 각 국·과장, 주무관들이 언제쯤 현장을 다녀왔는지? 내년 개통에는 정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점검과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의원들도 지역구 역사 공사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한 두달 일일이 조례명을 명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12월과 1월에는 강북구소식지 의회 지면에 조례 제명을 일일이 기록할 것이 아니라 대표로 한 건만 신고 무슨 조례 외 몇 건으로 표기하고 그곳에 상세한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내용을 실었으면 한다며 동료의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어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현재까지 경전철공사 추진경위를, 행정관리국에서는 강북구소식지 게재 및 지면 할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이영심 의원

“강북구소식지에 경전철공사 관련 소식 실어야”

이영심 의원은 제1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현재까지 경전철공사 추진경위와 개통시기 요금관계, 환승역, 역사 출입구 관계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영심 의원은 “경전철공사 완공이 내년 11월20일경이지만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이 있고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히고 주민들은 경전철공사가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개통이 되느냐, 또 20년 쯤이나 되는 것이냐 등등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들이 나온이라며 상세한 일정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전철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된 탓에 개통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이기도 할 것이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사가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청장 혹은 각 국·과장, 주무관들이 언제쯤 현장을 다녀왔는지? 내년 개통에

는 정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점검과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의원들도 지역구 역사 공사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소식지에 게재되는 조례명과 관련해 “12월과 1월에는 강북구소식지 의회 지면에 조례명을 일일이 기록할 것이 아니라 대표로 한 건만 신고 무슨 조례 외 몇 건으로 표기하고 그곳에 상세한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내용을 실었으면 한다”며 동료의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어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현재까지 경전철공사 추진경위를, 행정관리국에서는 강북구소식지 게재 및 지면 할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우이~경전철 관련 정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이영심 의원

(새정치/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영심 의원은 경전철공사 완공이 내년 11월 20일경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모 시의원으로부터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이 있어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전철공사가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개통이 되느냐, 또 20년쯤이나 되는 것이냐 등등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며, 물론 그분들의 정보력을 탓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간 진행과정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많이 지연된 탓에 개통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아예 실감이 나지 않아서이기도 할 것이며, 또



▲ 이영심 의원.

한 아직도 1년 가까이 남았다는 사실에 속터져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영심 의원은 “현역 의원인 우리도 궁금한데 현재 불편한 교통상황을 감수하고 경전철 개통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나” 며, 12월, 1월 강북구소식지에 개통시기, 요금관계, 환승역, 역사 출입구 관계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만약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이 너무 많아 적당한 공간이 없어 기사배정이 어렵거나 혹은 너무 적은 지면을 할애할 바에는 강북구소식지 마지막면에 상세한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내용을 실었으면 한다. 요금관계는 상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예측되는 금액이나 향후 사실관계를 실어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 주문을 하던, 강북구에서 신탄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에도 경전철 관련 정확한 기사를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jej1718@naver.com〉